

Interview Transcript (Korean)

Interview date: 15/June/2014 (Time: 14:00 – 15:00, the UK time; 1 hour)

Place: Skype meeting

Interviewee: SY, Design consultant

지금 시모우파웰 오피스에 계신건가요?

아니요 원래 저희 오피스가 서울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저는 지금 본사(영국)에서 3 년여 정도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국에 따로 나와서 재택 근무 중이다.

아주 이상적인 잡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장단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한국이랑 시모우파웰이랑 일이 있으면 진행하는 코디네이팅 일을 하는건가? 대략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대략 그렇습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대략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구요, 그리고 프로젝트 스케줄링....행정적인 일을 거의다 하고 있구요...그리고 평소에는 한국에서 시모우파웰과 관련된...마케팅 활동이라고 해야하나요...네 세일즈...영업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석사, Brunel) 졸업하신 후 잡을 구하신건가?

아..네 저도 논문때문에 expert interview 등 때문에 컨택을 했다가...정말 우연한 기회에...당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잡인터뷰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렇다면...실례지만 런던 오피스에서 한 일은 어떤 일을 한것인가?

아 그땐 디자인 리서치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때도 한국 클라이언트 관리를 했었구요....그때는 공식적으로 디자인 리서치 팀에 소속되어있었습니다.

Projective questions and self-projection on questions for non-directive approach

She is a Korean design consultant working at Seymourpowell:

Worked at London office as a design researcher for three years after graduation of Brunel University MA; Moved to Seoul for new business development for Korean market: coordinating new design projects between the company and Korean clients: e.g. Samsung and LG

Worked as BI and CI designer at Korean design consultancies before she joined Seymourpowell

Overseas office for design project

Quality of design deliverables and organization decision making

2. 본론부터 들어가면, 한국회사들 컨택을 하시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은 하신건가요?

시모우파웰은 제품 디자인 회사이다보니, 주로 삼성전자, LG 전자등과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KT 와 같은 통신사? 쪽으로도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 그리고 Transportation 쪽으로도...예를 들어 전기 바이크와 같은...이런거 개발하고 있고...네...그런 프로젝트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예전에는...휴대폰....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모바일폰 디자인...텔레비전 디자인과 같은 Physical 한 디자인 쪽이 많았는데 요즘은 조금...그런 쪽은 많이 줄어들어고...그런 쪽은 외주를 많이 주지 않는 쪽으로 변했고...그리고 UX 쪽으로 일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주로 컨택하는 팀들도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것 같다. 예전에는 주로 Product design 팀들과 일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UX 나 UI 쪽...팀들이랑...리서치 프로젝트...전략 프로젝트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것 (쪽으로 변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골고루 다하시는 거군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든가...유형..무형의 (디자인) 일들까지 다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리서치팀이 있다보니... 전략쪽으로도 하고....유형...무형...적인것 다 하고 있죠.

Changes of trend of design project by change design environment

Past design projects were focused on physical design, appearance and styling for electronic products

can be outsourced due to modular design approach

Now most projects ordered are UX and UI projects (service design)

More intangible human element design focused

3. 지금 그런 일을 진행하시면서...한국회사들에게서 느껴지는...다른 클라이언트들과 비교해봤을때...디자인 priority 라던가...기대치(expectation)등에서 차이점이나...혹시나 공통점 등이 있나요?

그 제품쪽으로는....삼성이나 LG 쪽으로 비교를 해보자면...(둘다) 조직이 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디자이너 같은 경우만 봐도...삼성만 봐도 디자이너만 1200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웃음) ...네

그러다보니...뭐 그러다보니...UX 가 트렌드다 이러면 UX 팀으로 많이 배치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Design project and reconfigured organization structure

Too large organization size to carry out creative and conceptual design projects for new design – seen as silos : heavy departmentalization

Design approach and priority in design project is often being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market rivals and external elements

Organization structure and configuration are radically shifted

Many human resources in design department moved to UX/UI department, and organization structure for design projects are redesigned

그래서...외국회사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새는...그래서 UX 를 그러다보니 많이 하고 있는데...외국

회사들은...이렇게...작은아이디어 하나라도 appreciate 하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반면,

한국회사들은 아무래도 조직이 크다보니...겉치는 프로젝트...비슷한 프로젝트들을...선행 디자인팀에서도

하고...R&D 쪽에서도 하고...그러다보니 겉치는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고...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공유하시다보니...좀...어떠한 아이디어를 내놔도(웃음) ... "이미 본거다" 이런 경우들이 많으세요..."분명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알겠지만...분명...조직 내부 상황으로 푸쉬할수가 없다...그거를...."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그러다보니...현실을 감안한...어떤...현실적인 아이디어들....현실적이면서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야하니까...이게 굉장히 어렵고...사실 안보신 아이디어들이 없으세요...요새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놔도...이미 본거다 이런반응들이 많아서...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lack of respects of initial conceptual ideas suggested

heavily vertically configured organizational structure in Korean organization

projects operated are often overlapped and duplicated in an organization

또 이제...내부적으로 사용을 하셔야하니까...프로젝트들을 framework 화를 해야해요...또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과정들을...내부...과정들...뒤에 숨은 전략들을...좀 딱딱하게 보일수도 있는...어떻게 보면...일부로

그 프레임워크안에다가...일부러 막 거기에 틀에 끼워맞춰야하다보니...어떻게 보면 결과를 위한 결과낸다고나

할까(웃음)...조금...그런 경우..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위에다가 컨펌을 받는게 중요한 문화가 많다보니까...그런...것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and duplicated design projects preferring tangible frameworks in design projects

The framework is often manipulated for reporting

The framework explicitly address hidden rationales for reporting

Conceptual design deliverables placed in heavy bureaucratic formalization elements with rational and explanatory manners : confirmation and deduction with the deliverables as the end for the projects

4.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현상들이 제품 개발 프로젝트 과정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가? 어떤 것 같은가요?

그것이 회사나 팀별로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요.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사이다보니, 다른 글로벌 에이전시랑 일을 많이 하다보니 그런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디자인 브리프를 주실때 빈틈없이 잘 주셔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되어있는데...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smooth 하게 잘 흘러가는 프로젝트들도 있는 반면에...조금 그런게 없이...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의 ...결과물이 나올때는 그게 좀더 클리어한 편이고...전략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스콥이라던가 이렇게....위에 보고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하시다가...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부분들은...거기서 부터 서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무형적인것이다보니...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레임웍이나 이런걸 요청하시고...그런게 처음에는 스콥에 포함이 안되어있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조금...그런신거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에서 있긴 있는가 보군요?

특히 전략 프로젝트 쪽에는 조금 있는 것...반 정도는 그런경우인거 같습니다.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in formalization
Prefer to see tangible asset, rather than conceptual ideas: all process and design ideas including invisible strategic approaches should be converted into tangible framework or asset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quest of tangible deliverables – visible documentation and frameworks – as challenges in fuzzy design process
Intangible strategic design deliverable should be presented in rational and explanatory ways
Frequent change of project scopes often observed

An idea proposed is rather concerned with viability first, before exploration

5. 그렇게 바뀌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 현재 전자제품 추세를 보았을때, 생태환경을 구축한다던가 이런것이 요구되는...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애플 제품만 보아도 그렇고...그런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기가 힘든 환경이 아닐까요?

네...그리고...인제...외주를...말씀하신것처럼 처음부터 일관성있게...컨셉부터...뭐...말씀하신...생태환경이나...서비스디자인까지 이렇게 죽 이어지면 강력한 브랜드가 형성이 될텐데...그런부분이 저도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한것이 ...약간은...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될수가 없는 시스템이예요...왜냐하면...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데...어떤 하나의 에이전시와만 일을 할수가 없고 ...조직적으로도 따로따로...통합..통합 요새 많이 그러기도 하시지만...현실적으로는 잘 안이루어지다보니...아무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커서...인제...어떤 하나의 외주업체와만 일을 할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있고...인제...불공정 거래...이런게 있어가지고...이게 꼭...프로젝트마다 단계마다 ...큰 한덩어리를 하나의 에이전시와 같이 일을 하는게 아니고...어떤 조각 조각 좀 나누어져있다고 해야하나...그러다보니...그런...하나로 일관성있게 나오기가..굉장히 어려운...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 시스템적인 문제와...제도적인 문제가 결합이 되어있는 거군요?

그렇죠..네...아무래도 그런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Formation of digital ecosystem and explicit systems that govern organizations as barriers to drive open ecosystem

Shown challenges to set up a long term and consistent design strategy

A complicated Korean governmental regulation in trading and business manners
Causing inconsistent design projects : Short term performance led projects

7.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한국 조직만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오는 ..보고,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요?

네....그...저같은 경우는...바로 이게 결과...마지막에 파이널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윗부분에 계신 경영진들까지 모시고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보과는 시스템이나 절차들이 있다보니깐...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이 이제...담당하는 팀에서 그것을 어떻게 다시 가공하셔서..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그러다보니깐...이제..뭐 ...그분들이 ...내부에 계신 분들이깐...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긴 하지만...

Organization configuration and communication in bureaucratic formalization: manoeuvring project deliverables in communication process

A minority of top level members make a significant final decision in final phase of projects
Middle level personnel manipulate deliverables to manoeuvre decision making process

중간에서 결과들이 왜곡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거거든요...뭐...그런 경우...경우에 따라서 프로젝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환경이 조성이 되어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틀리시고...그런 것들이 조금...조금
거기에서 오는...뭐라 그래야하지.....그런 갭들이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어떻게...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라고 해야하나....그런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그런
생각을 한번씩...했었습니다...

Organization configuration and communication in bureaucratic formalization: manoeuvring project deliverables in communication process

Multiple level and weaker middle level personnel's authority
To cause skewed and twisted deliverables

8. 에이전시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정보의 왜곡, 확인과 보고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프로젝트를...프로젝트 과정들을 위아래가 보고하시려다보면....아무래도... 딱딱 어떤 틀에
맞춰서 보고하셔야하므로...말씀드렸다시피...프레임워크같은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세요...근데...하시다보면...그런데
항상 그 프레임워크대로 프로젝트가 굴러가는 것은 아니니깐...음...아무래도 디자인이다보니깐...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이 많고...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오류가 나는 그런적도 있고 그런데...그런것에 딱 맞춰서
보고를 하셔야하다보니...그런것을...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죠...그래서...이거를 프레임워크로
만들어달라...그러다보니...내용을 거기다 끼워맞추려다보니....결과물을 거기다 끼워맞추다보니...결과물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그런게 좀 힘든 부분인것 같습니다...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in formalization

Fuzzy design process in framed approach in Korean organizations

Design process as fuzzy and iterative

Korean design priority in organization: Fuzzy and conceptual ideas should be fit to a framed model for reporting :

Fuzzy process in conceptual phase is easily manipulated for clarifying the ideas

Hardly addressed with scientific and explanatory approaches

Clear decision is required of more formalized and rationales for consensus

**9. 클라이언트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구체화된 결과물과 처음에 제안하는 컨셉추얼하는 아이디어간에
어려운점이 많이 있을것 같은데...**

네...왜...전략...특히...리서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 전략이다보니...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보니...단어 한마디때문에 뉘앙스가 달라질수 있거든요...그런것들도 있고....그런것들은 언어적인 차이에서 오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그런것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in formalization
Complexity more arise from complex lexical meaning of Korean language
Formalization process complicated communications in lexical interpretation of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can differ depending on interpretation of lexical meaning in Korean

단어 선택/뉘앙스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smooth 하게 흘러가서...왜냐하면 그런분들은 위에다가 어떻게 보고하는지를 ...중간에서...중간자의 역할을 너무 잘...어떻게 조절하시는지를 알고 계시기때문에...처음부터 에이전시한테...이런거를 요구하면 된다 이런것과...이걸 어떻게 잘 포장해서...자기선에서 어떻게 잘 보고를 하면 된다...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이런 분들이 있으시면...프로젝트가 서로 굉장히 서로 양쪽이 해피하게 잘끝나는 반면...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는...그럴때는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in formalization
Reporting(formalization) is often necessarily required of manipulation for best understanding to superiors
Middle level personnel as moderator to mitigate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gency and top manager)

굉장히...어떨때는...위에다가 푸쉬를 못하시고...설득을 잘 못하시고...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설득을 못하시고 그러니까는...계속 저희한테 오셔서... 이거를 저희한테 이거를 ...유도를 하시죠...이렇게 이렇게 해달라...해피하게 될 수있게끔 해달라...저희한테 하시는 경우도 있고...

Complexity of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in design projects in formalization
Middle level manager required of interpersonal skill for mitigation
Middle level managers can maneuver a project for risk averse in the organization between stakeholders
External participants (agency) can be seen as a skillful operator or spokesman alike ones for reporting to client

물론 그런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하잖아요...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해피한게 가장 중요한건데...네...그게 어떤 보고를 위한 아이디어로 전략이 되버리니까는...그럴때 가끔 아쉬울때가 많죠...

- Concerns about risk averse in formalization process can be ended up with periphery reporting only
 - Conceptual design ideas can be thrown away

10. 미팅문화나 분위기는 어떤지? 그쪽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가셔서 하시기도 할텐데 분위기는 어떤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때 미팅을 하고...프레젠테이션을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보통 처음에는 출장을 많이 저희 쪽으로 오세요. 아이디어 제네레이션 하는 부분에서는...저희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Design projects in outsourced studio design consultancy
Idea generation in design process take place in outsourced design agency
Final project confirmation is ended up on a client side by making a final presentation: confirmation

서울에서 런던으로 말씀하시는거죠?

네. 오시면...저희는 아무래도 디자인회사다 보니까 ...그렇다보니깐...조금 자유로운 분위기기도 하고....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조금 아이디어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오픈을 하고...정말 말이 안되는 아이디어라도...그냥 무조건 의견을 누구나 자유롭게 내는 그런 분위기고...그런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고...그러다보니깐...처음에는 그러다보니깐....프로젝트를 많이 외국 업체랑 해보신 회사들은 괜찮은데....처음 해보신 회사들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아이디어에 대해서 탁!탁! ...처음부터 막을려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인제...음...저희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Communication style

The Western design consultancy

Individual's liberal idea presentation is recommended without any intervention
A client that understand the exploratory contexts rarely show hesitation to explore ideas

Some clients(Korean) shown embarrassment in idea exploration phase
Embarrassed clients often show repulsion to exploratory phase
Exploratory phase as ridicule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막지 말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구...조금 ...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하다보면...좋은 아이디어가....정리를 하다보면...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되는 경우도 많은데...그러다보니...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해야하나? 아무래도 디자인 회사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업체라 그렇게 더 크지 않을까도 하긴 하는데...하지만....그런데 또...한국 업체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해보면...한국 에이전시같은 경우에는...제가...이런 제품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지만...아무래도 이 정도의 크리에이티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그런 생각이 듭니다.

Communication style and open design workshop

Exploratory phase in design process can be resulted in unexpected quality idea by fabricating initially periphery ideas
Creative workshop as the initial place for fabricating periphery ideas

11. 그전에도 관련 업종에서 한국에서 일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전에는 주로 BI/CI 업체에서 ...주로 근무했었어요...(디자인 회사일지라도) 아무래도 한국에다 맞춰서 운영이 될것 같아요...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많이 그랬던거(자유로운) 분위기는 아닌거 같았던거 같아요

그럼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가 많이 크리에이티브하긴 한가 보군요?

네. 크리에이티브...네 많이 크리에이티브 한거 같아요. 평소 생활이나 조직문화자체도 네...그런것을 많이 중요시 하고...분위기기도 그렇고...사람 뽐을때도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그런것들이 가장 강점인것 같아요...영국이 크리에이브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잖아요? 좀 교육부터 다르게 받는 차이가 그런데서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Communication style and education

The Western design consultancy
Values creative atmosphere and mood in organizational cultures
Values creative personnel(person who can deliver exploratory ideas actively)
Different earlier education style in the UK has already valued to regenerate creative individuals
Social and organizational creativity has been nurtured from each individual

12. 요즘 오픈디자인, 참여 디자인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는데...이런 것들이 한국 회사들이랑 일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잘 매치되는거 같으세요?

사실... 그렇지는..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는 않은거 같아요. 디자이너는 굉장히 뛰어난 디자이너는 분명히 많으신거 같은데 ...조직문화자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조직에 맞춘 인재가 많이...그렇게 되잖아요...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향을 하긴 하는데...어쨌든...윗선에서 그런것들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그게 어려운부분들이 있으니까는...아직까지는 현실화는 안되는거 같아요. 그렇지만...그런 컨셉들이 나오고 있으니까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겠죠.

Open design and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s: collectivism and higher power distance

Talented individuals are often absorbed into a part of organizational culture

The individuals becomes fit into the system of the organization: systemized individuals

Strong top guys' authority hardly turn into open minded one

Open design in large organization can be driven by the top-down elements

Open design concepts are yet realized in actual organizations- Korea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게...제가 이제 입사한지 이제 7 년이 되어가는데...2008 년에 입사를 했는데...6 년차... 6 년차인가요?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 제가 들어왔을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바뀐거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 어느정도 자리를...그런 컨셉들이 이제 나오다보면은...이게 시스템화되고 그러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그런 것들이 처음들어왔을때보다는...그런것들이 조금씩 더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앞으로...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Emerging open design concept can foster change of organization by systemizing conceptual open design process

Optimistic movements as the concepts of open design, collaboration and integration are emerging in Korean organizations

그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거군요?

네 .

13. 만약 삼성측에서 잡 오퍼가 오면 당장 일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들어온적은 몇번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어서...

왜 자신이 없으셨어요?

Projective questions and self-projection on questions for non-directive approach

너무...이게 일에대한 프레셔가 많을거 같기도 하고...지금 현재 근무하는 회사 경우는 조금...작은 회사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조금...문화자체가 개인적인 라이프? 도 ..굉장히 중요시...가치를 두는...그런 분위기인데...만약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때...개인적인 일로...중요한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안만들려고 하지만...만약에 휴가를 냈다...그 사람이 하던일을 남들이 어떻게 해서든 커버를 해주고...인제 그 사람의 개인 라이프를 존중해주려고 하는 편이고...저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사고때문에 몇달 쉬었는데...그 당시에도 많이 회사측에서 배려를 해주었어요. 인제...그런 부분들이...제가 만약 삼성같은 조직에 가서...지금은 의견 수용이 많이 잘 되는 편인데...(삼성의 경우) 일도 너무 많이 하시고 보면...너무 많이 하시고...너무 많이...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다들 뛰어나신 분들인데...그게 안타깝다는...그게 (의견이) 수용이 안되다보니까는 결국에는 열정도...그냥...아무생각없이 다닌다 회사를...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그런게...그렇게 되다보면 일을 하기 싫어지지 않을까...결국에는...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Korean organizational cultures and individual: collectivism and higher power distance

collectivism-driven organizational culture

lack of respects of individuals (individuals as belongings to an organization)

individual's ideas are hardly accepted by large organization structure
individual members can lose passion
inflexible working conditions in parts of working life : heavy workload and long working hours in large Korean electronics manufacturers

14. 소위 말하는 오픈 디자인/ 오픈 이노베이션을 달성하려면 정리를 하자면 조직의 모습/문화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로서 평소 생각하신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조금더...음...조직을...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많이 축소를 하시는게 필요를 할거 같아요. 제가 만약에 경영진이라고 하면....저희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뒤에서 많이 했거든요....(컨설턴트끼리 말씀이신가요?) 저희끼리 있을때는....'내가 만약 삼성 회장이라면...조직부터 일단 축소시키겠다.' 소수의 팀이 책임지고 부분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그런것들이 있어야 할것 같고 ...믿을 수 있는 소수의 팀들을 밀어주고 그런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Projecting others' ideas into self-perspectives

왜냐하면 경영진에서도...경영진들이 디자이너들이 아니다보니...경영자의 마인드에서 디자인을 ...좀 막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거 같아요. 그렇게 하기 보다는...디자인쪽에다가 많이 권한을 주고...파워를 많이 줄수 있는 방향...어떻게 그렇게 가는게...조금 혁신을 이룰수 있는 조직을 되지 않을까 합니다.

Organization structure and open innovation

Large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and size itself inhibit to foster innovation
Diversified businesses and organizational configuration as barriers to focus on core business
Lack of understanding of design
Top executive members little understand design
The executive members have no design background

15. 정리해보면...삼성, 엘지 제품을 놓고 보면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조직을 떠나서?

지금까지는 계속 팔로워였잖아요. 계속...지금 세계 1 위이긴 하지만...삼성같은경우..모바일 같은 경우...예전에 노키아나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때 위험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품자체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이런 것들은 패스트 팔로워이고...이런 것들은 어떻게...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긴 하지만...어떻게 해서든지 팔로워가 아니라 어떤 먼저 앞장서서 혁신을 이끌어가는 제품 그런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조금...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은 전세계적으로 어느정도 쌓인 편이니깐...그것 이상으로 어떤 혁신적인...어떤 것이 중요한것 같애요.

Design approach in organization: uncertain future of Samsung

Conception of design as making a quality 'product' (function and features)
Chasing the certain level of quality and features with an object can be achieved with incremental input: fast follower available
Adopted know-how driven knowledge in incremental growth rather than know-what
Imaginary and strategic approach required as a leader for the innovative company
Revolutionized approach for innovative product can be a solution